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29일 개막

10월9일까지 5·18 광장·문화전당
세계적 유명 작가들 작품 선보여
케이팝 그룹 공연 등 광장축제로
시내 거점 공간 현장인증 이벤트

2022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하 'GMAF 2022')이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5·18 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GMAF 2022는 '도시에 색을 올리다(Color of City)'를 주제로 유명 미디어아트 작가와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국내 정상급 음악가 공연의 광장축제로 준비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행사기간 5·18 민주광장에는 주무대 'GMAF 미디어큐브'가 설치되며,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과 크라잉넛, 노브레인 등 정상급 케이팝(K-POP) 그룹, 일렉트로닉 뮤직(Electronic Music) 밴드 이디오테잎, 디제이(DJ) 공연 등을 진행한다.

또 프린지페스티벌, 버스커즈월드컵 등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돼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오스트리아 린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토루 이즈미다(Toru Izumida·일본)와 유진 고드노브(Eugene Godunov·미국)의 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음향·영상 행위 예술(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등도 마련돼 글로벌 미디어아트 축제의 위상 확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를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디어아트 놀이터'를 운영하며, 미디어아트 기업인 '디아랩'과 'KT' 의 가상현실 체험, 플라스틱 재활용 체험과 증강현실 단말기(키오스크) 포토존, '알지비랩(RGB LAB)'의 야외 설치 전시까지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5관에서는 '유희 물질'이라는 기획전시를 통해 사물의 시선과 인간의 행위를 상상력의 언어로 놀이하는 미디어아트 이야기 등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초청작품과 국내 유수의 미디어아트 기업인 자이언트스텝 등이 참여하고 RGBst 임용현, 이수진, Collective ROM 등 국내 미디어 작가 등의 작품이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기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1~2권역과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전일빌딩 245,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등 시내 거점 공간에서도 GMAF 2022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장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올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해외 기관 및 작가 참여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아트 축제의 원년으로, 미디어아트 놀이터와 케이팝(K-POP) 가수 초청 등을 통해 행사의 대중성도 확보했다"면서 "광장 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머무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산강변 별을 담는 감성캠핑

광주환경공단 24~25일 이틀간
우크라이나 전쟁난민아동 포함
지역아동 105명에 추억 선물

광주환경공단은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광주시 남구 소재 승촌보캠핑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고려인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5명을 대상으로 '영산강변 별을 담는 감성캠핑(이하 감성캠핑)'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감성캠핑은 환경공단이 지난 8월 광주시 기업봉사단협의체 워크숍에서 광주지역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기반 협력사업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행사에는 기업봉사단협의체 52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지원하고, 참가한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한 자원봉사자 100여명도 함께했다.

또 지역기업 후원으로 캠핑체험과 체육활동, 광주환경공단 자선밴드 문화공연 및 비보잉 공연, 캠프파이어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박재우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ESG경영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광주기업봉사단협의체와 함께 소통과 나눔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환경공단은 매년 꾸준한 헌혈 활동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기금 전달, 재능기부를 통한 농기계 수리사업 등 주변의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들 개발
비대면 공공문서
날인 시스템 특허 등록

광주 공무원들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문서 날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나우철, 최해송, 박요한, 박혜진, 정훈, 강성용 주무관은 최근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 및 확인 시스템' 특허 등록을 마쳤다. 공공문서 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문서 중 원본이 종이인 경우 날인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공무원, 민원인 단말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이미지화한 종이 문서와 직인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날인하는 방식이다. 정보무늬(QR코드) 입력, 문서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이미지 복사 등 위조도 막을 수 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연구 모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텍스트마이닝 기반 감사자료 분석 시스템' 특허 등록을 했다.

나우철 주무관은 "업무상 느꼈던 불편함에서 착안해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특허 등록까지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권 16개, 디자인권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드론 활용 시설 안전점검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광산구 평동산단 쿠팡물류센터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진단 집중안전점검' 드론 활용 안전점검 시현현장을 방문해 점검사항을 보고 받고 첨담장비(드론) 활용 안전점검을 참관했다.

광주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모집…10월 21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것으로, 모집 분야는 ▲건축물 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2개다.

광주시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 자본금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기술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한 후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등 건축물 점검이 필요할 때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점검을 하게 되며, 점검 3개월 전까지 점검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실시 절차를 통지하게 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업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blcm.go.kr)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와 자치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관광 우수기업 육성 나선다

공모전 통해 우수기업 10곳 선정
사업자금·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광주시와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년 광주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우수기업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광주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은 혁신적 지역 관광콘텐츠 기업 발굴 및 지역 관광창업 확산을 목적으로, 올해 신설된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의 첫 번째 사업이다.

공모전에는 총 9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지역상생 전통 관광기업 1곳, 지역혁신 관광벤처·스타트업 4곳, ICT 기반 융복합 기술 관광기업 1곳, 예비 관광스타트업 4곳 등 총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상생 전통 관광기업은 ▲감풀협동조합(메타버스로 떠나는 지역 관광명소), 지역혁신 관광벤처·스타트업은 ▲주식회사 무빙트립(ICT기술을 융합한 무장애 관광프로그램 운영) ▲주식회사 여수와(광주다운 여행) ▲허니벳저픽처스 주식회사(호텔 거점 지역 관광 숏폼 콘텐츠) ▲ 소잉(반려동물 동반 명소안내 플랫폼), ICT 기반 융복합 기술 관광기업은 ▲주식회사 디노랩스(지역 관광 인플루언서 마케팅 매칭 서비스), 예비 관광 스타트업은 ▲UNIQUE GWANGJU (GWANGJU WELCOME HOUSE) ▲문화예술기획사 술래(강강술래를 통한 음악 체육 프로그램) ▲루나 C&A(e스포츠 관광) ▲주식회사 더아람(어등산 마음힐링여행)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관광기업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며,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사업화지원금, 입주공간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추가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예비창업자 교육, 관광 OJT 아카데미, DX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성장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지역 관광기업을 발굴 및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유흥적합)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6억8천

(보3천,월수익 380만 ,융 4억)
(유흥가능 , 사무실 , 빠 , 룸 ,홀덤바)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월수익- 72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5천
(융자 7억)

신축원룸 (공실없음)

경매교육[기초반 특수반]

*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2614-9801